

## ■ 서삼석 무안군수 '기업도시유치 경험' 직격토론

장관은 대통령앞서 “안된다” 하고  
輿의장애걸해도 만나주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무관심 일관

4·25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계산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삼석 무안군수가 자신의 군정 경험을 토로하며 “정치꾼보다는 일꾼”을 뽐어야 한다고 호소,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무안 기업도시에 입주할 업체와의 미팅을 위해 서울을 찾은 서 군수는 무안·신안 보궐 선거와 관련, “무안은 전남 발전의 전초기지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력보다는 경제적 마인드가 있고 미래 지향적 인사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 기업도시가 제대로 서야 전남의 발전도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 서 군수는 “시골 군수가 지역구 국회의원 도움없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7천6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던 과정은 너무 깊고 험했다”라며 그동안의 설움(?)을 털어놨다.

서 군수는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부처 사무관을 만나더라도 머리를 조아렸으며 여당의 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모든 인연을 다 동원했다”며 힘들었던 경험을 밝힌 뒤 “지역구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훨씬 사업 진행이 빨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무안 국제공항을 방문했을 때 당시 정세균 산지부장관이 ‘중국 정부의 무안 기업도시 투자 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눈앞이 침침했다는 서 군수는



“일개 군수가 대통령의 말씀 중에 끼어드는 결례를 무릅쓰고 무안 국제공항의 활주로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중국 투자를 이끌기 위해 중국 정부 관리를 만나면서 이수성 전국무총리 등 정·관계 인맥을 총동원했다는 서 군수는 “전남지역 정치인 가운데 무안 기업도시 부지를 방문한 인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서 군수는 또한, “박준영 전남 지사의 전남발전 구상도 방만한 경향을 보이면서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라도 무안을 시작으로 전남 발전의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무안 기업도시 착공이 현실화되고 나니 이제 국내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서 군수는 “이번 보궐 선거에서는 무안의 발전과 전남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사가 당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오늘 ‘서남해안 특별법 제정’ 추진대회

국토 서남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최인기 민주당 의원, 목포시, 무안·신안, 해남·영암군 등 서남권 8개 시·군단체장 및 주민, 지역 상공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 (사) 서남해안포럼 관계자 등 500여명은 22일 오후 3시부터 영

암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서남해안 특별법 제정 추진대회’를 갖는다.

이날 대회에서는 그동안 지역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서남권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서남해안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게 된다.

전남도는 신안군 도초도 600만여

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 자본감소 및 이에 대한 체권자이의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07년 2월 20일 일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700,000,000 원을 금 600,000,000 원으로 감소하는 회사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법 제20,000주에 대하여 임의부상소송하기로 하여 법원부서에서 총수 70,000주를 50,000주로 감소하는 절차를 결의하였다.

이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체권자는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이를 공고한,

2007년 2월 22일

## 주식회사 풍영산업

광주 공단구 신창동 462-11

대표이사 박 준 선

## 분할 공고

2007년 2월 20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의 토폐건축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부문(임대업, 고시원운영업, 참고업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새로 (주)새를 설립하고 본 회사는 손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분할에 이의가 있는 체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일로부터 2007년 3월 24일까지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22일

## 근도건설(주)

충남 천안시 두정동 48-8

대표이사 장 경 천

##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07-97호

##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 사전 주민등의 의견청취공고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입안에 따른 사전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제20조에 따른 행정부지(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으니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주민 의견이 있을 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22일

## 광주광역시 남구 청장

## 1. 입안계획의 특색

단위	도로명	위치	면적	면적(면적)
1	양평동 회현로(한국화재)	직접지정(한국화재)으로 주민에 의해 가능한 한 멀도록 설치되는 도로	면적 21.77m <sup>2</sup>	면적 21.77m <sup>2</sup>
2	제2동 제2로(한국화재)	직접지정(한국화재)으로 주민에 의해 가능한 한 멀도록 설치되는 도로	면적 10.00m <sup>2</sup>	면적 10.00m <sup>2</sup>
3	제3동 제3로(한국화재)	직접지정(한국화재)으로 주민에 의해 가능한 한 멀도록 설치되는 도로	면적 2.76m <sup>2</sup>	면적 2.76m <sup>2</sup>

3.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07. 2. 22. ~ 2007. 3. 8.(16일간)

4. 열람장소 : 남구 도시개발본부(☎ 650-7434) 및 양평동사무소(☎ 650-7665)

5. 의견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제출. 품

## 분할 합병 공고

주식회사 남도전기(이하 “남”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산성전기(이하 “산”이라 한다)는 2007년 2월 21일 각 회사에서 개최된 일시 주주총회에서 (남)은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남)에 분할하기로 결의하고 (남)은 존속하며, (산)의 재무는 (남)에 솔직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합병 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체권자는 본 회사 주주는 본 공고게재일 이후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22일

## (김) 주식회사 남도전기

전남 순천시 역동로 10-65 2층 2호

대표이사 정 범 회·원 필연

## (윤) 주식회사 산성전기

전남 여수시 춘무동 347-2

대표이사 김 희 삼

**SONY**  
의 모든 것  
www.119accessories.co.kr

## 영산호·목포항 등 주변 경관 볼수있게

## 영산강 하구둑 도로 3.5m 높인다

영산강 하구둑 도로가 영산호 등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21일 목포시 옥암동에서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방조제 겸용 국도 2호선이 영산강 하구둑 도로를 방조제 둑마루 높이까지 3.5m 높여 영산호와 목포항을 이용하는 교통량 소화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81년 준공된 이 도로는 방조제 둑보다 낮아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

또 매년 가을이면 갈치낚시를 위해

전국에서 많은 낚시꾼들이 방조제로 몰려 드는데 낮은 도로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도 커 도로의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로를 방조제 둑마루 높이까지 3.5m 높여 경관 확보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 나가기로 하고 방조제 관리 주체인 농림부와 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 예산·장학금도 지원된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인천공항철도 첫 시승

오는 3월 23일 개통예정인 인천공항철도 1단계 구간의 민간인 첫 시승행사가

21일 오후 열렸다. 이날 인터넷으로 탑승 신청을 한 시민들이 김포공항역에서

/연합뉴스

인천공항행 열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 원숭이 섬·낙타 섬 등 야생동물 공원 사업

## 쾌속선·배후관광지 없인 곤란

## 타당성 조사 지적

전남도가 관광자원 개발분야 역점 사업인 ‘섬 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생동물 복원공원 조성사업은 강약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취약점 보완이 성공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 사업에는 용지보상비 1천500억 원과 물류원 조성사업비 2천억원, 기반시설비 1천100억원 등 국비와 지방비, 민자유치 등을 통해 모두 4천70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우선 장점으로는 빠져난 지역적 여건과 문화적 특성이 꼽혔다. 천혜의 경관을 지닌 서남권 다도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갯벌 등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이 산재해 있고 주변에서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J프로젝트) 조성 등 다양한 개발계획이 추진돼 관련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는 목포에서 벡길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등 접근을 위한 기본시설이 열악하고 방문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배후도시가 없어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짜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도 외래종 물류복원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에 유사한 시설이 산재하는 등 국내외 지역 간 경쟁관계도 사업 추진 부담요인으로 꼽혔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산행안내

2월 24일(토)

▲ 오산시 설악산 대청봉 2월 24일(토) 21시30분 광주역 출발 T.016-611-1509

▲ 나시모산자연화재 페리 헌인산 2월 25일(일) 06시 광주역 출발 \* 490-1405, 011-9608-3357

▲ 솔잎산자연화재 페리 헌인산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

▲ 광주도립유원지 해금강 2월 25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 대